

“지구촌 평화 위해 노력하는 대승보살 되자”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불교의 ‘황금유대’를 확인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개막됐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 양양 낙산사 등지에서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한국대회를 개최했다. 3국 불교계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와 국제학술강연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을 통해 3국 불교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환경보존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한중일 3국의 불자들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승보살이 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공동 협력해 나가자.” 동북아 불교를 대표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3국 불교계는 “큰 변화의 흐름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있는 3국의 불교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위해 일불(一佛) 제자로서 우의와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을 공고히 함으로써,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 “탐욕심이 고통과 재앙을 초래하는 원인이라 나와 자연이 하나임을 깨달아 지구 환경보존을 적극 실천하자”고 역설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일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중국불교협회장 환인(傳印)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회 회장 이토 유이신(伊藤唯眞)스님 등 3국 불교 대표가 반갑게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누며 막을 열었다. 이어 열린 환영 만찬에서 각국 대표들은 환영사와 답례사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이번 대회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대회의 주요일정은 둘째 날인 지난 2일 전개됐다. 오전에 양양 낙산사를 방문한 한중일 3국 불교 대표단은 낙산사

회주 정념스님 등 대중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기념 식수, 원통보전과 해수관음보살상 참배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낙산사는 이번 대회 개최지로써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2005년 불의의 화마로 경내 대부분 전각이 전소됐다. 최근 복원불사를 마치고 새롭게 단장한 낙산사는 불자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성원을 받아 천년고찰을 재건했다는 점에서 종교와 사회가 공존하고 상생하는 모범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보타전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였다. 500여 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3국 불교 대표단은 동북아 불교가 앞장서 세계평화를 위해 발걸음을 함께 하자고 다짐했다. 법회는 육법공양, 삼귀의례, 헌화,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의 환영사, 3국 불교별 예불의식 및 대표의 메시지 발표, 찬불가 합창, 사물서원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3국 불교 대표들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황금만능주의와 환경 파괴 등으로 괴멸해지고 있는 세계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치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메시지를 통해 “대립과 투쟁으로 파괴되어 치달는 인류에게 자비와 공존을 미덕으로 삼는 불교의 가치만이 평화를 선물할 수 있다”며 “세상의 어



한중일 3국 불교 대표단은 지난 2일 오전 양양 낙산사 대중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흥예문을 통해 들어섰다. 사진 왼쪽부터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 중국불교협회장 환인 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회 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 낙산사 회주 정념스님.

“대립 폭력 치달는 인류에게 불교 가치만이 평화 선물” 총무원장 스님 메시지 발표

평화기도법회·공동선언문 3국 ‘황금유대’ 재확인 차기 대회는 日 요코하마

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으며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메시지 발표 후 3국 불교 대표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인류가 대립과 폭력을 멈추고 무소유의 행복을 깨달아 모든 고뇌가 사라진 불국토가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했다. 같은 날 오후 개최한 ‘국제학술강연회’는 ‘불교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영향’을 주제로 전개됐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정사,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웨청(學誠)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이 한중일 불교계 대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고,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장 흥선스님 등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회 일정 중 짬을 내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창건해 주석한 진전사를 방문해 참배했으며, 진전사 운영현황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1박2일간 열린 대회의 주요 일정을 마친 3국 불교 대표단은 오후 7시 축하 만찬을 열고 회향했다. 만찬에서 3국 불교는 이번 대회를 총화하는 동시에 내년 대회에서 다시 만나 ‘황금유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것을 서원하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랬다.

한편 차기 한중일 대회는 내년 10월 중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며, 상세한 대회 일정은 내년 3월 말 일본 교토에서 실무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양양=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사진 김형주 기자 coajoo@ibulgyo.com



낙산사 경내를 참배한 3국 불교 대표단은 해수관음보살상 앞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했다.



낙산사 보타전에서 봉행된 세계평화기도대법회에서 3국 불교계가 함께 공동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세계평화기도대법회 후 보타전 앞에서 기념촬영에 나선 3국 불교 대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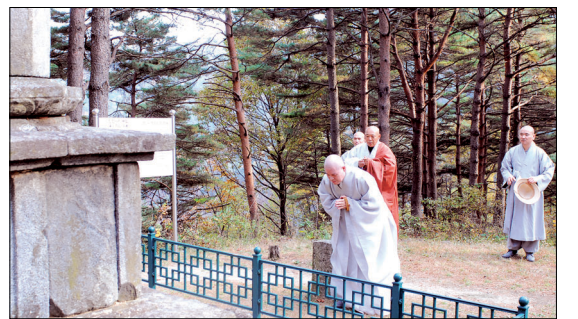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3국 불교 대표들이 낙산사 경내에서 기념식수를 하는 모습.



세계평화기도대법회는 한중일 불교 대표단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학술강연회에서 3국 불교 대표단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회 일정 중 짬을 내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가 창건한 진전사를 참배했다.



중국불교협회장 환인 스님이 10월28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신(편)입생모집

2012학년도 전기 석사과정 신(편)입학 및 지도자 과정 모집 안내(아간)

■ 모집학과 및 전공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 및 문화예술인 지도자	불교예술문화 연구 예술 문예 창작 예술경영 예술치료	불교미술, 한국음악, 문화재 연구 예술 시, 소설, 드라마 공연예술경영, 조형예술경영 미술치료(지도자과정 제외)	00명

* 과정, 학과(전공), 학기별 선발인원은 추후 확정 예정

■ 접수 및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인터넷 원서접수	2011.11.7(월)~11.17(목)	-본교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원서접수 http://gsca.dongguk.edu
전형일자	2011.11.26(토) 09:00~	-면접장소: 본대학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간: 개별공지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료	₩60,000	
합격자발표	2011.12.2(금) 00:00 예정	-문화예술대학원 홈페이지 -본 대학원 학사운영실 게시판

■ 수업 일시

매주 월, 화요일 1교시 [18:30 ~ 19:50], 2교시 [20:00 ~ 21:20]

■ 문의처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학사운영실
TEL 02-2260-3606~7 FAX 02-2260-3741

금강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사회복지불교학과	사회복지불교학전공	석사 00명, 박사 0명

2. 모집일정

가. 원서접수 : 2011. 11. 14(월) ~ 11. 18(금)
나. 면접 : 2011. 11. 29(화) 15:00 예정
다. 합격자 발표 : 2011. 12. 5(월)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ggu.ac.kr에 공고

3.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구술

4. 기타

가.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나. 인문한국(H-K)지원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선발되면 매월 일정액의 인건비(석사과정 : 월 60~80만원, 박사과정 : 월 80~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 대학원생 전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업료를 감면합니다.

과 정	감면비율
석사과정	일반학생 수업료의 70%를 감면 천태종 승려 수업료의 100%를 감면
박사과정	일반학생 수업료의 40%를 감면 천태종 승려 수업료의 100%를 감면

(신입생 - 전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4.30만점에 3.40점 이상인 자)
라. 본교 출신자 또는 대한불교 천태종 승려는 입학금 100%를 감면합니다.
마. 본 대학원 재학 중 조교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바. 재학 중 가족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gu.ac.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